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7 CHOCOLAT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hocolate」 (원서 PDF 126~132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초콜릿의 나라 스위스는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이 장은 노르웨이 친구 페르난다가 알려 준, 코코아 가루를 듬뿍 넣은 브라우니로 시작한다. 스스로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저자의 초콜릿 사랑은 수입이 금지되던 1960년대 중반 한국에서 미군 기지를 몰래 빠져나와 암시장에서 팔리던 M&M으로 시작되었다. 아즈텍의 차가운 음료였던 초콜릿은 1847년 고체가 되었고, 1875년 분유로 만든 첫 밀크 초콜릿과 1879년 콘칭 공정을 거치며 스위스는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가 되었다. 저자는 초콜릿 이야기를 발판 삼아 스위스가 은행과 관광, 곧 서비스로 번영하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라는 통념을 뒤집는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제조업 산출이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이고, 탈산업화는 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에서 왔으며, 탈산업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를 부르고 나쁘게 보면 실물 경제에 해롭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4장(멸치)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스위스 성공의 비밀은 서비스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다(131쪽 ¶4~¶5) / 서비스는 제조업 없이 존재할 수 없다(130쪽 ¶5) /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주로 서비스의 상대 가격 상승 탓이다(130쪽 ¶3) / 탈산업화를 이끄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다(130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I am an addict / The illegal substance / chocolate is chocolate / a whole new universe / (wimps!) / a byword for high-quality chocolate / A negative spin · A positive spin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 would have us believe / a convenient excuse /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 an unwitting role model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Daniel Peter와 Henri Nestlé 사이를 오가는 128쪽 ¶7 / it(127쪽 ¶2 = Hershey's bar · Dairy Milk) / they(127쪽 첫 줄 = these chocolatiers) / them(128쪽 ¶2 = the Aztecs) / The two(128쪽 ¶7) / it(129쪽 첫 줄 = Switzerland) / it(130쪽 ¶5 =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se countries(131쪽 ¶1 = 미국 · 영국)
7~8	내용 일치·불일치	1960년대 중반 · 1967 · 1975(가나 초콜릿) · 70% · 23% · 11% · 3대 생산국 · 에콰도르 · 페루 · 16세기 · 17세기 · 1847 · 1875 · 1879 · 1970년대 · 1990년대 · 약 900만 명 · 40% → 10~20% · 약 10% · 60~70% · 80~90% · 1980년대 · 2008 · 1694 · 2020~22
9~10	**어법**	형용사적 to부정사 · 원서 표기 got hooked · 동명사 주어 · other than · would(과거 습관) · enough of a + 명사 + to V · that of · so ~ that · having p.p. · be said to have p.p. · which is why · 과거완료 · 지각동사 + O + 원형 · 관계대명사 what · 수동 분사구문 · what절 주어 → 단수 · 비교절 도치 · used to be p.p. · for + not -ing · 전치사 + which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enterprising↔unenterprising · dependable↔unreliable · dismissive↔appreciative · refined↔crude · prevalent↔rare · basic↔sophisticated · decline↔expand · proponent↔opponent · marginally↔substantially · feeble↔robust · unwitting↔deliberate
12	빈칸 추론	같은 산출에 더 적은 노동자(130쪽 ¶2) / changes in productivity, not changes in demand(130쪽 ¶1) / services are becoming relatively more expensive(130쪽 ¶3) /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130쪽 ¶5)
13	문장 삽입	다크 초콜릿이 먼저였던 까닭(128쪽 ¶4~¶6): 1847 고체화 → 첫 바는 다크 초콜릿 → This is not because ~(인기 때문이 아님) → It was because ~(우유의 수분 · 곰팡이)
14	무관한 문장	저자의 초콜릿 소비(127쪽 ¶4~128쪽 ¶1)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스위스의 1인당 제조업 산출, 129쪽 ¶5)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중독의 시작(126쪽 ¶1~¶4): 중독 고백 → 불법 물질 = M&M → 'M&M 암시장?' · 수입 금지 → 작은 소비재 밀수 · 떠돌이 행상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제조업과 R&D · 영미의 착각(130쪽 ¶6~131쪽 ¶1): R&D의 60~70% · 80~90% → 제조업의 쇠퇴를 긍정적 신호로 착각 → 방치 · 편리한 핑계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나라 · 비율 · 재료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960년대 중반(M&M) · 1967(한국의 초콜릿 생산 시작) · 1975(가나 초콜릿) · 70% · 23%(Dairy Milk) · 11%(Hershey) · 16세기(스페인의 정복) · 17세기(유럽 전파) · 1847(고체 초콜릿) · 1875(밀크 초콜릿) · 1879(콘칭) · 1970년대(탈산업 담론) · 1990년대(탈산업화) · 약 900만 명(스위스 인구) · 40% → 10~20%(제조업 고용) · 약 10% · 60~70% · 80~90%(R&D) · 1980년대 · 2008 · 1694 · 2020~22. 1967은 생산 시작, 1975는 가나 초콜릿이다. 나라 · 회사 · 인물도 많다(가나 · 코트디부아르 · 인도네시아 · 에콰도르 · 페루 · 싱가포르 · 인도 · 르완다 · Lotte · Fry's · Lindt & Sprüngli · Nestlé · Daniel Peter · Henri Nestlé · Jostein Hauge).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1967 ↔ 1975, 11% ↔ 23%, 차가운 음료 ↔ 따뜻한 음료, 16세기 ↔ 17세기, 다크 ↔ 밀크, 생우유 ↔ 분유, 1875 ↔ 1879, 가장 산업화된 경제 ↔ 서비스 경제, 생산성 ↔ 수요, 상대 가격 ↔ 절대량, 영국은 예외 ↔ 영국도 같음). 전언 · 추측(it is believed · are said to · probably · highly likely)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탈산업 담론 지지자의 주장(would have us believe)을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hocolate」 (126~131쪽)

논증형(초콜릿 중독 고백 → 미군 기지의 M&M과 수입 금지 → 가나 초콜릿 → 고급부터 대중 초콜릿까지 → 카카오의 기원과 아즈텍 → 스페인과 유럽 → 1847 고체 초콜릿 → 1875 밀크 초콜릿 · 1879 콘칭 → 스위스 = 서비스 경제라는 통념 → 탈산업 담론 → 반박: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스위스 → 생산성 · 상대 가격 → 서비스와 혁신은 제조업에 기댐 → 영미의 해악 → 결론: 스위스의 비밀은 제조업). 핵심 축은 **서비스(탈산업 담론) vs 제조업**, 그리고 **수요의 변화 vs 생산성의 변화**.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6 [제목]	요리	Fernanda's brownies(노르웨이 친구 Fernanda Reinert) – 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126 ¶1~¶3	도입	'중독자'의 고백 / 1960년대 중반 걸음마 시절 · 미군 기지에서 빼돌린 '불법 물질' = M&M
126 ¶4	수입 금지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외 수입 금지 / 미군 기지의 소비재 밀수 → 떠돌이 행상 → 중산층
126 ¶5	한국 초콜릿	1967년까지 생산 없음 · 1975년 가나 초콜릿(가나산 콩 · Lotte) – 가장 오래 이어진 상표
126 ¶6~127 첫 줄	고급 초콜릿	60년 가까운 씨름 / 다섯 고급 초콜릿 회사(알파벳 순) · 원산지를 따지는 감식가는 아님
127 ¶1~¶2	대중 초콜릿	속물이 아님 / Hershey 11% · Dairy Milk 23% · '초콜릿은 초콜릿'
127 ¶3~128 ¶1	온갖 조합	땅콩 · 견과 · 오렌지 / 밀가루 → 새 우주 / 코코아 · 카카오 닙스 · 칠리 콘 카르네 · 몰레 포블라노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8 ¶2	카카오의 기원	메소아메리카 원산 · 3대 생산국은 그 밖 · 에콰도르 · 페루에서 처음 재배(여겨짐) · 아즈텍의 차가운 음료 · 화폐(전언)
128 ¶3~¶4	유럽으로	16세기 스페인 · xocolātl /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퍼짐
128 ¶5~¶6	고체 초콜릿	1847 Fry's of Bristol의 첫 대량 생산 바 · 다크 초콜릿 — 우유를 넣으면 곰팡이
128 ¶7	스위스의 혁신	1875 Daniel Peter(분유 — Henri Nestlé) · Nestlé 설립 · 1879 Lindt & Sprüngli의 콘칭 →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129 첫 줄~¶1	통념	스위스 = 초콜릿 · 시계뿐 · 서비스로 먹고삶 / 부정적 해석 · 긍정적 해석(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129 ¶2~¶4	탈산업 담론	1970년대 · 농업 → 공업 → 서비스 / 1990년대 탈산업화 · 중국 / 스위스 · 싱가포르 = 증거 · 인도 · 르완다
129 ¶5~130 첫 줄	반박 1	스위스 = 1인당 제조업 산출 세계 1위 · 생산재 / 싱가포르 2위 · 노르웨이 · 핀란드의 해변 휴가
130 ¶1~¶4	반박 2	탈산업화 = 생산성의 변화 · 고용 40% → 10~20% /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짐 / 제조업 능력 = 생활 수준의 결정 요인
130 ¶5~¶6	제조업의 힘	서비스의 주된 고객 = 제조업 / 혁신의 원천(R&D 60~70% · 80~90%)
131 ¶1~¶3	영미의 해악	1980년대부터 제조업 방치 · 금융 과잉 → 2008 위기 · 거품 / 팬데믹: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131 ¶4~¶5	결론	스위스 성공의 비밀 = 세계 최강의 제조업 / 탈산업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 나쁘게 보면 해로움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1960년대 한국의 수입	금지 — 승용차 · TV · 비스킷 · 초콜릿 · 바나나	허용 —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초콜릿 취향	고급 — 다섯 고급 초콜릿 회사 · 70% 카카오 바 · 이국적인 트러플	대중 — Dairy Milk · 가나 · Hershey('초콜릿은 초콜릿')
Hershey 평가	유럽의 많은 '동료 중독자' — 초콜릿이 부족하다며 깔봄(11%)	저자 — M&M 시절 들인 맛 · 여전히 각별한 애정
카카오의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 — 메소아메리카(처음 재배는 에콰도르 · 페루로 여겨짐)	오늘날 3대 생산국 —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인도네시아
초콜릿 음료	아즈텍 — 차가운 음료 · 옥수수 퓌레 ·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	멕시코의 스페인 사람 —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첫 초콜릿 바(1847)	겉보기 — 다크 초콜릿이 더 인기 있어서?	실제 — 우유를 넣으면 여분의 수분으로 곰팡이 → 1875 분유로 해결
스위스에 대한 시각	통념 — 초콜릿 · 시계뿐 · 서비스(은행 · 관광)로 먹고삶	실제 —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1인당 제조업 산출 1위 · 생산재)
스위스의 두 해석	부정적 — 독재자의 검은돈 · 조잡한 기념품	긍정적(더 널리 퍼짐) —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탈산업화의 원인	탈산업 담론 — 수요가 서비스로 옮겨 감(절대량)	저자 — 주로 생산성의 변화(기계화 · 서비스의 상대 가격 상승)
제조업의 몫	겉보기 —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상대 가격을 고려하면 — 대부분 아주 조금 감소(영국은 예외)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는 증가
서비스와 제조업	'새' 서비스 — 전문 회사가 공급 → 서비스 산출로 계산	실제 — 예전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제공 · 주된 고객은 제조업(130쪽 ¶5)
제조업에 대한 태도	미국 · 영국 — 쇠퇴 = 긍정적 신호라는 착각 · 방치 → 금융 과잉 · 거품	스위스의 비밀 — 세계 최강의 제조업(초콜릿 명성도 제조업의 독창성)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hocolate ([제목])	Fernanda's brownies(노르웨이 친구 Fernanda Reinert) · 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 '가장 끈적한 브라우니'
저자의 '중독'	**1960년대 중반** 걸음마 시절에 시작 · 처음 빠진 '불법 물질' = M&M(미군 기지에서 빼돌려 한국 암시장에서 판매)
당시 한국의 수입 금지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외 금지(승용차 · TV · 비스킷 · 초콜릿 · 바나나) / 미군 기지에서 작은 소비재를 대규모로 밀수(미군 기지는 지금도 몇 곳 남아 있음)
밀수 소비재	통조림(Dole 과일 칵테일 · Spam) · 주스 가루(Tang) · 비스킷 · 껌 · 초콜릿 → 떠돌이 행상 → 여윳돈 있는 중산층 가정 / 초콜릿(M&M · Hershey 밀크 초콜릿 바)은 가장 인기 있는 축
한국 초콜릿	**1967년**까지 생산 없음 · **1975년** 가나 초콜릿(Lotte · 가나산 카카오 콩으로만 · 한글로는 'gh'를 못 적음) — 지금도 가장 오래 이어진 상표
고급 초콜릿 회사(알파벳 순)	Hotel Chocolat(영국) · Lindt & Sprüngli(스위스) · Pierre Marcolini(벨기에) · Republica del Cacao(에콰도르) · Valrhona(프랑스) / 저자는 단일 농장 원산지 · 베네수엘라산과 트리니다드산 콩의 차이를 따질 감식가는 아님
초콜릿 함량(BBC 보도)	Hershey **11%** · Cadbury's Dairy Milk **23%**(감히 '초콜릿'이라 부르지 못함) / 70% 카카오 바
좋아하는 조합	땅콩(땅콩 M&M · Reese's · 가장 좋아하는 Snickers) · 통아몬드 · Toblerone · Ferrero Rocher(헤이즐넛 삼위일체) / 오렌지(Terry's Chocolate Orange · 오렌지 조각 · Jaffa Cakes)
밀가루와 초콜릿	브라우니 · 퍼지 케이크 · 기네스 케이크 · 용암 케이크 ·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 Kit Kat · Twix ·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다이제스티브 · 초콜릿 칩 쿠키
과자가 아닌 방식	어릴 때 마시는 초콜릿(kokoa) · 지금은 홍차 · 커피 / 카카오 닙스 · 칠리 콘 카르네에 다크 초콜릿 두어 조각 · 멕시코의 몰레 포블라노(초콜릿 + 고추 소스)
카카오나무	Theobroma cacao · 메소아메리카 원산 / 3대 생산국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인도네시아 / 처음 재배는 오늘날의 에콰도르 · 페루로 여겨짐(논란 있음)
아즈텍과 카카오	올멕 · 마야 · 아즈텍이 받아들임 / '콩' = 카카오 꼬투리의 씨앗 · 옥수수 퓌레 ·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를 넣은 차가운 음료 / 고지대에서 자라지 않아 귀함 · 마야 · 아즈텍이 화폐로 썼다고 함(전언)
유럽으로	스페인 사람들 · **16세기** 아즈텍 제국 정복 뒤 · 이름은 아즈텍 말 xocolātl에서 / 음료 ·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바르게 퍼짐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첫 초콜릿 바	**1847년** · Fry's of Bristol(영국 퀘이커교도 제과 회사 삼두마차 — Cadbury's of Birmingham · Rowntree's of York) · 다크 초콜릿 · 우유 → 여분의 수분 → 곰팡이
밀크 초콜릿	**1875년** 두 스위스인 · 쇼콜라티에 Daniel Peter가 생우유 대신 분유(Henri Nestlé 발명) · 둘이 뒤에 다른 이들과 Nestlé 설립
콘칭(conching)	**1879년** Lindt & Sprüngli(스위스 회사) · 재료를 기계로 오래 섞어 질감 · 풍미 개선 → 스위스 =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스위스에 대한 통념	초콜릿과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뿐 · 서비스로 먹고삶 / 부정적: 독재자의 검은돈 · 뻐꾸기시계 · 소 방울(아마 다 중국산 — 추측) / 긍정적: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탈산업 담론	**1970년대**에 생겨남 · 농업 → 공업(옷 · 가구 → 전자 제품 · 자동차) → 서비스 / **1990년대**에 힘을 얻음('탈산업화') · 중국 · 스위스 · 싱가포르 · 인도 · 르완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실제	스위스 =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1인당 제조업 산출 1위) · 인구 약 **900만** · 생산재(기계 · 정밀 장비 · 산업용 화학 물질) / 싱가포르 = 2위
제조업 고용	반세기 전 부자 나라 노동력의 약 **40%** → 오늘날 **10~20%**로 같은(때로는 더 많은) 산출 / 「Strawberry」 참고
상대 가격	제조업 생산성이 더 빨리 오름 →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짐(컴퓨터 · 휴대전화 vs 이발 · 외식) / 고려하면 제조업 몫은 아주 조금 감소(영국은 예외)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는 증가
서비스와 R&D	금융 · 운송 · 사업 서비스의 주된 고객 = 제조업(130쪽 ¶5) ·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자는 주장도(131쪽 각주 i: Jostein Hauge) / 미국 · 영국: 제조업 산출 약 **10%** · R&D **60~70%** · 독일 · 한국 **80~90%**
미국과 영국	**1980년대**부터 제조업 방치 · 금융 과잉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 장기 침체 · 저금리 · 양적 완화의 거품 / 132쪽 각주 ii: 영국 금리는 **1694년**(잉글랜드 은행 설립) 기록 시작 이래 최저
코로나19(2020~22)	주식 시장은 역사적 최고치 · 실물 경제는 곤두박질 · 실업 · 소득 감소 →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는 서로 상관없음
스위스 성공의 비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은행 · 고급 관광이 아님) / 초콜릿 명성도 제조업의 독창성(분유 · 밀크 초콜릿 · 콘칭)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hocolate」 (원서 PDF 126~131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7-1 중독의 시작 – 미군 기지의 M&M과 한국의 수입 금지 126쪽 ¶1~¶5

원문 위치 원서 126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6쪽 [제목]	Fernanda's brownies (from Fernanda Reinert, a Norwegian friend)	노르웨이 친구의 요리 — 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	126쪽 ¶1	I have a confession to make. I am an addict.	도입 — 형용사적 to부정사 · '중독' 비유의 시작
▲	126쪽 ¶2 첫 문장	My habit started in the mid-1960s, when I was a toddler (yes, I was precocious)	계속적 관계부사 when · 시기 — 일치
★	126쪽 ¶2 둘째 문장	The illegal substance that I first got hooked was smuggled out of American military bases and sold in black markets	원서 표기 got hooked(보통 get hooked on) · 수동태 병렬 · 마약 비유
◆	126쪽 ¶3	It was called M&Ms.	반전 — '불법 물질'의 정체
▲	126쪽 ¶4 첫~둘째 문장	Black market in M&Ms? I am not making it up.	의문문 한 문장 · make up
★	126쪽 ¶4 셋째 문장	the importing of foreign goods other than the machines and the raw materials directly needed for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was banned	주어 the importing(단수) → was · other than · 일치
★	126쪽 ¶4 넷째 문장	enterprising Koreans smuggled smaller consumer items on a large scale out of the American military bases that dotted the country at the time (we still have some)	순서 문항의 바탕 · 어휘(enterprising · dot)
▲	126쪽 ¶4 다섯째 문장	were sold on to itinerant peddlers, who would then sell them to middle-class families with a bit of extra cash to spare	계속적 who · 과거의 습관 would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6쪽 ¶5 첫 문장	Chocolates, like M&Ms and Hershey milk chocolate bars, were among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던 밀수품 가운데 하나
★	126쪽 ¶5 둘째 문장	No one produced chocolate in Korea until 1967, and it wasn't really up to much until 1975, when we got the Gana chocolate bar	숫자 — 일치 함정(1967 ↔ 1975)
★	126쪽 ¶5 둘째 문장	made exclusively with cacao beans imported from Ghana ... by Lotte confectioner – it is still the country's longest-running brand of chocolate	과거분사구 · 이름의 유래 · 일치

내용

저자는 고백할 것이 있다며 자신이 중독자라고 말한다. 그 버릇은 저자가 걸음마를 하던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저자는 '그렇다, 나는 조숙했다'고 덧붙인다). 처음 빠져든 불법 물질은 미군 기지에서 몰래 빼돌려져 저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의 암시장에서 팔리던 것, 바로 M&M이었다. M&M의 암시장이라니, 지어낸 말이 아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나라의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와 원자재를 빼고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승용차, 텔레비전, 비스킷, 초콜릿, 심지어 바나나까지 무엇이든 그랬다. 자동차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수완 좋은 한국인들은 당시 전국 곳곳에 있던 미군 기지(지금도 몇 곳은 남아 있다)에서 더 작은 소비재를 대규모로 빼돌렸다. 통조림(저자는 Dole 과일 칵테일과 Spam이 특히 인기였다고 기억한다), 주스 가루(Tang이 최고였다), 비스킷, 껌, 초콜릿이 떠돌이 행상에게 넘겨졌고, 행상은 이를 여윳돈이 좀 있는 중산층 가정에 팔곤 했다. M&M이나 Hershey 밀크 초콜릿 바 같은 초콜릿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물건에 속했다. 한국에서는 1967년까지 아무도 초콜릿을 생산하지 않았고, 1975년까지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1975년에 제과 회사 Lotte가 가나에서 수입한 카카오 콩으로만 만든 가나 초콜릿 바를 내놓았다(한글로는 'gh'를 적을 수 없고, 어차피 그 'h'는 소리 나지 않는다). 가나 초콜릿은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초콜릿 상표다.

어법

- **I have a confession to make. I am an addict.** : a confession to make =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고백할 것). make a confession(고백하다)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꼴이다.
- **My habit started in the mid-1960s, when I was a toddler** : 콤마 + when =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선행사 the mid-1960s, '그런데 그때'). in the mid-1960s = 1960년대 중반에.
- **The illegal substance that I first got hooked was smuggled out of American military bases and sold in black markets in South Korea of my childhood** : get hooked on ~(~에 빠지다)이 보통의 꼴이라 the substance that I first got hooked on에서 on이 빠진 원서 표기다. 주어 The illegal substance → was smuggled ... and (was) sold(수동태 병렬).
- **Black market in M&Ms? I am not making it up.** : Black market in M&Ms? = 주어 · 동사 없이 명사만으로 된 의문문(문장 수를 셀 때 한 문장). make up = (이야기를) 지어내다.
- **the importing of foreign goods other than the machines and the raw materials directly needed for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was banned** : 주어는 the importing(명사처럼 쓰인 동명사, 단수) → was banned. other than ~ = ~ 이외의. directly needed for ~ = raw materials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구.
- **Smuggling in things like cars and TVs from abroad was very difficult, but enterprising Koreans smuggled smaller consumer items on a large scale out of the American military bases that dotted the country** : 동명사

주어 Smuggling → 단수 was.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American military bases) → dotted. on a large scale = 대규모로.

- **were sold on to itinerant peddlers, who would then sell them to middle-class families with a bit of extra cash to spare** : sell on to ~ = (넘겨받은 것을) ~에게 되팔다. 콤마 + who = 계속적 용법. would = 과거의 반복된 습관(~하곤 했다). cash to spare = 쓰고 남는 돈(형용사적 to부정사).
- **it wasn't really up to much until 1975, when we got the Gana chocolate bar, made exclusively with cacao beans imported from Ghana** : not up to much = 별로 대단하지 않다. not A until B = B가 되어서야 A. made exclusively with ~ = the Gana chocolate bar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fession	고백	admission	—
addict	중독자	—	—
precocious	조숙한	advanced	—
substance	물질	material	—
hooked	(~에) 빠진, 중독된	addicted	—
smuggle	밀수하다, 몰래 빼돌리다	bootleg	—
black market	암시장	—	—
ban	금지하다	prohibit	allow
enterprising	수완 좋은, 진취적인	resourceful	unenterprising
dot	곳곳에 흩어져 있다	scatter	—
itinerant	떠돌아다니는	travelling	settled
peddler	행상	hawker	—
exclusively	오로지	solely	—
longest-running	가장 오래 이어진	—	—

내용 일치 [제목] = 노르웨이 친구 Fernanda Reinert의 브라우니(설탕 · 밀가루 · 달걀 · 베이킹파우더 · 많은 코코아 가루) / 중독의 시작 = 1960년대 중반 걸음마 시절(조숙했다) · 처음 빠진 '불법 물질' = M&M(미군 기지에서 빼돌려 한국 암시장에서 판매) / 당시 한국: 산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계 · 원자재 외 수입 금지(승용차 · TV · 비스킷 · 초콜릿 · 바나나) · 자동차 · TV 밀수는 매우 어려움 · 수완 좋은 한국인이 미군 기지에서 작은 소비재를 대규모로 밀수(미군 기지는 지금도 몇 곳 있음) · 통조림(Dole 과일 칵테일 · Spam) · 주스 가루(Tang) · 비스킷 · 껌 · 초콜릿 → 떠돌이 행상 → 여윳돈 있는 중산층 가정 / 초콜릿(M&M · Hershey 밀크 초콜릿 바)은 가장 인기 있는 축 / 한국 초콜릿: 1967년까지 생산 없음 · 1975년까지는 별로 · 1975년 가나 초콜릿(Lotte · 가나산 카카오 콩으로만 · 한글로는 'gh'를 못 적고 'h'는 소리 나지 않음) · 지금도 가장 오래 이어진 상표. **밑줄 의미** I am an addict = 초콜릿을 끊지 못한다는 농담 섞인 고백 / The illegal substance = 마약처럼 말했지만 실은 밀수된 M&M / I am not making it up =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 you name it = 무엇이든 다 / enterprising Koreans = 수입 금지의 틈을 파고든 수완 / not really up to much = 1975년 전 한국 초콜릿은 별로였다 / 지칭: 126쪽 ¶2 that(I first got hooked) = The illegal substance / 126쪽 ¶3 It = 그 불법 물질 / 126쪽 ¶4 it(making it up) = M&M 암시장 이야기 · that(dotted) = the American military bases · who = itinerant peddlers · them(sell them) = 밀수된 소비재 / 126쪽 ¶5 it(wasn't up to much) = 한국의 초콜릿 · it(the 'h' in it) = 'gh' · it(is still) = 가나 초콜릿.

한 줄 요약 저자의 초콜릿 '중독'은 수입이 금지되던 1960년대 중반 한국에서 미군 기지를 빠져나온 M&M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초콜릿은 1975년 가나 초콜릿이 나와서야 쓸 만해졌다.

17-2 초콜릿이라면 무엇이든 – 고급 초콜릿부터 칠리 콘 카르네까지 126쪽 ¶6 ~ 128쪽 ¶1

원문 위치 원서 126쪽 ¶6 ~ 128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6쪽 ¶6	I have spent almost six decades constantly struggling with (and usually giving in to) my desire to consume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cacao beans	spend + 시간 + -ing · give in to · 숫자
▲	126쪽 ¶7(127쪽 첫 줄까지)	in alphabetical order, so that I don't show any favouritism here – Hotel Chocolat (British), Lindt & Sprüngli (Swiss) …	so that 목적 · 다섯 회사의 국적 – 일치
★	127쪽 첫 줄(126쪽 ¶7 둘째 문장)	I am not enough of a connoisseur to put much value in the single-estate origin of cacao beans	enough of a + 명사 + to V · 불일치 함정
▲	127쪽 첫 줄(126쪽 ¶7 둘째 문장)	I cannot resist the intensity and the complexity of flavours and aromas that they are able to conjure	they = these chocolatiers · conjure
◆	127쪽 ¶1	Liking those very refined chocolate products, however, does not mean that I am a snob. I take chocolate in all its forms.	동명사 주어 → does · 주제문
★	127쪽 ¶2 둘째 문장	rather rudely dismissive of Hershey's chocolate bar for not having enough chocolate in it	for + 동명사의 부정 · 어법 문항의 바탕
★	127쪽 ¶2 셋째 문장	it has only 11% chocolate – less than half that of a chocolate bar that contains so little chocolate that it does not dare call itself 'chocolate' … Cadbury's Dairy Milk, with a 23% chocolate content	that of · so ~ that · 숫자(11% ↔ 23%)
▲	127쪽 ¶2 넷째 문장	I still have a very soft spot for Hershey's, having acquired the taste for it during my M&M days	완료 분사구문 – 어법 문항
◆	127쪽 ¶2 다섯째 문장	for me, chocolate is chocolate – whether it is 70%, 23% or 11%	whether A, B or C · 밑줄 의미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7쪽 ¶3	I will have to vote for peanuts … the Holy Hazelnut Trinity of Ferrero Rocher … I am partial to orange and chocolate combinations	be partial to · 좋아하는 조합 — 일치
★	127쪽 ¶4 첫 문장	Introduce flour (with fat, especially butter, and sugar) to chocolate and you are creating a whole new universe	명령문 + and · 무관한 문장 문항의 바탕
▲	127쪽 ¶4 넷째~다섯째 문장	chocolate digestives are my absolute favourite … chocolate chip cookies that I cannot get enough of	cannot get enough of
★	127쪽 ¶5 둘째 문장	I loved drinking chocolate (kokoa, as we called it in Korea then), although these days I drink it rarely, having moved on to tea and coffee	as + S + V · 분사구문
★	127쪽 ¶5 다섯째 문장(128쪽 첫 줄까지)	add a couple of squares of a dark chocolate bar when making chilli con carne, which works wonders	접속사 + 분사 · 계속적 which
◆	128쪽 첫 줄 · 128쪽 ¶1	chicken with mole poblano, a sauce made with chocolate and chilli … I could go on. But you get the picture.	동격 · 이야기 정리

내용

M&M 시절부터 저자는 60년 가까이, 카카오 콩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고 싶은 욕구와 끊임없이 씨름해 왔다(그리고 대개는 졌다). 맨 위 고급품으로는 고급 초콜릿 회사의 바 · 트러플 · 플로렌틴 같은 멋진 것들이 있다. 편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알파벳 순서로 꼽으면 Hotel Chocolat(영국), Lindt & Sprüngli(스위스), Pierre Marcolini(벨기에), Republica del Cacao(에콰도르), Valrhona(프랑스)다. 저자는 초콜릿 바에 든 카카오 콩의 단일 농장 원산지에 큰 가치를 두거나, 이 회사들이 흔히 내세우는 베네수엘라산과 트리니다드산 콩의 풍미 차이를 따질 만큼 감식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빚어내는 풍미와 향의 강렬함과 복잡함에는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세련된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자가 고급만 찾는 속물은 아니다. 저자는 초콜릿이라면 어떤 형태든 먹는다. 70% 카카오 바나 고급 초콜릿 회사의 이국적인 트러플 한 상자보다 Cadbury의 Dairy Milk나 가나 초콜릿 같은 평범하고 믿음직한 바를 고를 때가 많다.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동료 중독자'는 Hershey 초콜릿 바에 초콜릿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다며 꽤 무례하게 깎아내린다. BBC 보도에 따르면 Hershey 바의 초콜릿은 11%뿐이어서, 초콜릿이 너무 적게 들어 감히 스스로를 '초콜릿'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바, 곧 초콜릿 함량 23%인 Cadbury의 Dairy Milk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도 저자는 M&M 시절에 그 맛을 들인 덕에 Hershey에 여전히 각별한 애정이 있다. 저자에게 초콜릿은 70%든 23%든 11%든 그냥 초콜릿이다. 초콜릿에 무엇을 더한다면 저자는 땅콩에 표를 던진다(땅콩 M&M, 여러 Reese's 제품,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Snickers). 초콜릿을 입힌 통아몬드, 작은 견과 조각이 든 Toblerone, '헤이즐넛 삼위일체'인 Ferrero Rocher도 기꺼이 먹는다. 과일을 더하는 데는 마음이 엇갈리지만 오렌지와 초콜릿의 조합(Terry's Chocolate Orange, 다크 초콜릿을 입힌 설탕 절임 오렌지 조각, Jaffa Cakes)은 특히 좋아한다. 초콜릿에 밀가루(그리고 지방, 특히 버터와 설탕)를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 브라우니, 퍼지 케이크, 기네스 케이크, 용암 케이크,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그리고 수많은 비스킷과 쿠키가 있다. Kit Kat

과 Twix도 좋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 다이제스티브이고, 초콜릿 칩 쿠키(Maryland, Pepperidge Farm, 슈퍼마켓 자체 상표, 집에서 구운 것)는 아무리 먹어도 모자란다. 마지막으로 과자가 아닌 방식도 있다. 어릴 때는 마시는 초콜릿(당시 한국에서는 '코코아'라고 불렀다)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홍차와 커피로 옮겨 가 거의 마시지 않는다. 아이스크림은 대체로 별로지만 초콜릿이 들어 있으면 기꺼이 먹는다. 가끔 아침 시리얼 · 요구르트 · 아이스크림에 카카오 닙스를 뿌리고, 최근 한 친구에게서 칠리 콘 카르네를 만들 때 다크 초콜릿 두어 조각을 넣는 법을 배웠는데 효과가 놀랍다. 멕시코에 가면 초콜릿과 고추로 만든 소스인 몰레 포블라노를 곁들인 닭 요리를 자주 먹는다. 이야기는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감이 올 것이다.

어법

- **I have spent almost six decades constantly struggling with (and usually giving in to) my desire to consume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cacao beans** : spend + 시간 + -ing = ~하며 (시간을) 보내다. struggling with와 giving in to가 목적어 my desire를 함께 받는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everything and anything → 단수 has). have to do with = ~와 관련이 있다.
- **in alphabetical order, so that I don't show any favouritism here** : so that + S + V = ~하도록(목적). 알파벳 순서는 편애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장치다.
- **I am not enough of a connoisseur to put much value in the single-estate origin of cacao beans … or to fuss about the differences in flavour** : be enough of a + 명사 + to V = ~할 만큼 충분히 ~이다. 부정이라 '~할 만한 감식가는 못 된다'. to put과 to fuss가 or로 병렬.
- **Liking those very refined chocolate products, however, does not mean that I am a snob** : 동명사 주어(Liking …) → 단수 does not mean. however = 문장 중간에 끼운 접속부사(그러나).
- **it has only 11% chocolate – less than half that of a chocolate bar that contains so little chocolate that it does not dare call itself 'chocolate'** : that of ~ = the chocolate content of ~(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that). so + little + 명사 + that = 너무 적어서 ~하다. dare + 동사원형(call).
- **I still have a very soft spot for Hershey's, having acquired the taste for it during my M&M days** : having + p.p. = 완료 분사구문(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유). having 없이 acquired만 쓰면 동사가 둘이 되어 비문. have a soft spot for = ~을 각별히 좋아하다.
- **Introduce flour (with fat, especially butter, and sugar) to chocolate and you are creating a whole new universe** : 명령문 + and = ~하면 …하게 된다. introduce A to B = A를 B에 넣다.
- **When I was a kid, I loved drinking chocolate (kokoa, as we called it in Korea then), although these days I drink it rarely, having moved on to tea and coffee** : drinking chocolate = 마시는 초콜릿(괄호의 kokoa가 그 이름). as we called it = 우리가 그렇게 부르던. having moved on = 완료 분사구문(이유).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cade	10년	—	—
give in to	~에 굴복하다	yield to	resist
upmarket	고급의	high-end	downmarket
favouritism	편애	partiality	impartiality
connoisseur	감식가	expert	novice
fuss about	~을 시시콜콜 따지다	—	—
conjure	빚어내다, 만들어 내다	produce	—
refined	세련된, 정제된	sophisticated	crud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nob	속물, 고급만 찾는 사람	—	—
dependable	믿음직한	reliable	unreliable
dismissive	깔보는, 무시하는	contemptuous	appreciative
soft spot	각별한 애정	fondness	dislike
scoff	게걸스럽게 먹다	devour	—
partial to	~을 특히 좋아하는	fond of	—

내용 일치 60년 가까이 카카오 콩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욕구와 씨름(대개는 굴복) / 고급 초콜릿 회사(편애하지 않으려고 알파벳 순): Hotel Chocolat(영국) · Lindt & Sprüngli(스위스) · Pierre Marcolini(벨기에) · Republica del Cacao(에콰도르) · Valrhona(프랑스) · 단일 농장 원산지나 베네수엘라산 · 트리니다드산 콩의 차이를 따질 감식가는 아니지만 풍미 · 향의 강렬함 · 복잡함에 저항 못함 / 속물이 아님 · 모든 형태의 초콜릿 · Dairy Milk나 가나를 70% 바 · 트러플보다 자주 고름 / 유럽의 많은 동료 중독자는 Hershey를 깔봄 · BBC: Hershey 11% · Dairy Milk 23% · M&M 시절 들인 맛 · '초콜릿은 초콜릿' / 땅콩(가장 좋아하는 Snickers) · 아몬드 · Toblerone · Ferrero Rocher · 과일은 엇갈리지만 오렌지 조합은 좋아함 / 밀가루 → 새 우주 ·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 다이제스티브 / 어릴 때 kokoa(지금은 홍차 · 커피) ·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이 들어 있으면 · 카카오 닙스 · 칠리 콘 카르네(친구에게 배움) · 멕시코의 몰레 포블라노. **밑줄 의미** so that I don't show any favouritism = 알파벳 순서는 공정함을 위한 장치 / not enough of a connoisseur = 원산지를 따지는 전문가 흉내는 내지 않는다 / does not mean that I am a snob = 고급만 찾지 않는다 / rather rudely dismissive = 유럽 애호가들의 깔봄에 대한 저자의 불만 / does not dare call itself 'chocolate' = 초콜릿이 너무 적어 이름조차 내세우지 못한다(23%) / chocolate is chocolate = 함량과 상관없이 다 좋다 / a whole new universe = 밀가루를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과자가 생긴다 / you get the picture = 이만하면 저자의 초콜릿 사랑을 알 것이다 / 지칭: 127쪽 첫 줄 that(these chocolatiers often highlight) = the differences in flavour · they = these chocolatiers / 127쪽 ¶2 it(enough chocolate in it · it has only 11%) = Hershey's chocolate bar · that(half that of) = the chocolate content · it(does not dare) = Cadbury's Dairy Milk / 127쪽 ¶3 their(little nut pieces) = Toblerone bars의 · them(Bring them on) = 오렌지와 초콜릿의 조합들 / 127쪽 ¶5 it(drink it rarely) = drinking chocolate · which(works wonders) = 다크 초콜릿을 넣는 일.

> **한 줄 요약** 저자는 고급 초콜릿부터 초콜릿이 11%뿐인 Hershey 바, 땅콩 · 오렌지 · 밀가루와의 조합, 칠리 콘 카르네와 몰레 포블라노까지 초콜릿이라면 어떤 형태든 즐긴다.

17-3 카카오 콩에서 밀크 초콜릿까지 – 초콜릿의 역사와 스위스 128쪽 ¶2~¶7

원문 위치 원서 128쪽 ¶2~¶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8쪽 ¶2 첫~둘째 문장	Chocolate is made from the seeds of the cacao tree (Theobroma cacao) … Côte d'Ivoire, Ghana and Indonesia being the three largest producers	be made from · 독립 분사구문 · 일치
◆	128쪽 ¶2 셋째 문장	There is a debate about it,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acao tree was first domesticated in modern-day Ecuador and Peru	전언 · 추측(it is believed) — 단정 금지
★	128쪽 ¶2 넷째 문장	It was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nations of modern-day Mexico – the Olmecs, the Mayans and the Aztecs	세 민족 — 일치
★	128쪽 ¶2 다섯째 문장	which are of course not beans but the seeds of the cacao fruit … making a cold drink of chocolate mixed with corn purée and laced with chilli, allspice, and vanilla	not A but B · 분사구문 · 일치(cold)
▲	128쪽 ¶2 여섯째 문장	Because cacao tree cannot grow in the highlands that are home to the Aztecs, cacao beans were particularly valued by them	원서 표기(cacao tree 앞 관사 없음) · 일치 정답 후보
◆	128쪽 ¶2 일곱째 문장	The Mayans and the Aztecs are said to have used the cacao bean as a form of currency	be said to have p.p. — 전언
★	128쪽 ¶3	in the sixteenth century after their conquest of the Aztec empire, which is why the current names of the substance derive from the Aztec word, xocolātl	which is why · 일치 함정(16세기 ↔ 17세기)
▲	128쪽 ¶4 둘째~셋째 문장	the Spaniards in Mexico had taken the chilli out (wimps!) and added sugar or honey …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과거완료 · 저자의 농담
★	128쪽 ¶5	Chocolate was made solid only in 1847. Fry's of Bristol, one of the then triumvirate of British Quaker confectioners	숫자 · 동격 · 삽입 문항의 바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8쪽 ¶6 둘째~셋째 문장	This is not because dark chocolate was more popular than milk chocolate. It was because all the earlier attempts to add milk to chocolate bars had failed	not because ~ / It was because ~ · 삽입 문항의 단서
★	128쪽 ¶7 첫~둘째 문장	solved in 1875 by two Swiss. Daniel Peter, a chocolatier, created the first milk chocolate bars by ditching fresh milk and using powdered milk, invented by Henri Nestlé	지칭 문항의 바탕 · 숫자 · 인물
★	128쪽 ¶7 셋째 문장	The two later joined forces with others to form the food giant Nestlé	목적의 to부정사 · 일치
★	128쪽 ¶7 넷째 문장	In 1879, Lindt & Sprüngli, another Swiss firm, made the next leap in chocolate making by inventing the process of 'conching'	숫자 — 일치 함정(1875 ↔ 1879)
◆	128쪽 ¶7 다섯째 문장	Switzerland became a byword for high-quality chocolate	어휘(byword) ·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는 다리

내용

초콜릿은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 씨앗으로 만든다. 카카오나무는 메소아메리카가 원산지이지만, 오늘날 주요 생산국은 그 지역 밖에 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가 3대 생산국이다. 논란이 있지만, 카카오나무는 오늘날의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여겨진다. 카카오는 오늘날 멕시코 땅의 여러 민족, 곧 올멕 · 마야 · 아즈텍이 열심히 받아들였다. 아즈텍인은 카카오 '콩'(물론 콩이 아니라 카카오 열매, 곧 카카오 꼬투리의 씨앗이다)을 무척 좋아해, 초콜릿에 옥수수 퓌레를 섞고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를 넣은 차가운 음료를 만들었다. 카카오나무는 아즈텍인이 사는 고지대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카카오 콩은 특히 귀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카카오 콩을 화폐로 썼다고 한다. 스페인 사람들은 16세기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뒤 멕시코에서 초콜릿을 본국으로 가져갔고, 그래서 오늘날 이 물질의 이름은 아즈텍 말 xocolātl에서 나왔다. 처음 유럽에 들어왔을 때 초콜릿은 원래의 아즈텍 방식대로 음료였다. 다만 그때쯤 멕시코의 스페인 사람들은 아즈텍의 원래 조리법에서 고추를 빼고(저자는 '겁쟁이들!'이라고 놀린다) 설탕이나 꿀을 넣었다. (마시는) 초콜릿은 17세기부터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다. 초콜릿이 고체가 된 것은 1847년에 와서다. 당시 영국 퀘이커교도 제과 회사 삼두마차(버밍엄의 Cadbury's, 요크의 Rowntree's와 함께)의 하나인 브리스톨의 Fry's가 대량 생산된 첫 초콜릿 바를 발명했다. 초콜릿 음료에 우유를 섞는 관행은 두어 세기 전부터 있었지만, 첫 초콜릿 바는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이었다. 다크 초콜릿이 더 인기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 전에 초콜릿 바에 우유를 넣으려던 시도가 모두, 그 결과 생긴 여분의 수분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1875년 두 스위스인이 풀었다. 쇼콜라티에 Daniel Peter가 생우유를 버리고, 우유 기반 가공식품 기술의 마법사 Henri Nestlé가 발명한 분유를 써서 첫 밀크 초콜릿 바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뒤에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 식품 대기업 Nestlé를 세웠다. 1879년에는 또 다른 스위스 회사 Lindt & Sprüngli가 재료를 기계로 오래 섞어 초콜릿의 질감과 풍미를 개선하는 '콘칭' 공정을 발명해 초콜릿 제조에서 다음 도약을 이루었다. 스위스는 고품질 초콜릿의 대명사가 되었다.

어법

- **Chocolate is made from the seeds of the cacao tree … Côte d'Ivoire, Ghana and Indonesia being the three largest producers** : be made from = (재료의 형태가 바뀌어) ~으로 만들어지다. 대시 뒤 Côte d'Ivoire … being ~ = 의미상 주어가 따로 있는 독립 분사구문.
- **There is a debate about it,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acao tree was first domesticated in modern-day Ecuador and Peru** : it is believed that ~ = ~라고 여겨진다(가주어 it, 전언 · 추측). 단정이 아니므로 '처음 재배되었다'고 못 박지 않는다.
- **Aztecs were super-keen on the cacao 'beans' (which are of course not beans but the seeds of the cacao fruit, or cacao pod), making a cold drink of chocolate mixed with corn purée and laced with chilli** : be keen on = ~을 아주 좋아하다. not A but B. or = 곧(다른 이름). making ~ = 분사구문(그래서 ~을 만들었다). mixed · laced = chocolate을 꾸미는 과거분사 병렬.
- **The Mayans and the Aztecs are said to have used the cacao bean as a form of currency**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완료부정사 — 과거의 일에 대한 전언).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 **The Spaniards brought chocolate back home from Mexico in the sixteenth century after their conquest of the Aztec empire, which is why the current names of the substance derive from the Aztec word, xocolātl** : 콤마 + which = 앞 절 전체를 받는 계속적 용법. which is why ~ = 그래서 ~이다. derive from = ~에서 나오다.
- **By that time, however, the Spaniards in Mexico had taken the chilli out (wimps!) and added sugar or honey** : by that time + 과거완료(had taken · (had) added) = 그때 이미 ~해 두었다. take A out = A를 빼다.
- **It was because all the earlier attempts to add milk to chocolate bars had failed because of the resulting excess liquid, which allowed mildew to develop** : 앞 문장 This is not because ~에 이어 It was because ~로 진짜 까닭을 댄다. because of + 명사구. allow + O + to V. which = the resulting excess liquid(계속적 용법).
- **Daniel Peter, a chocolatier, created the first milk chocolate bars by ditching fresh milk and using powdered milk, invented by Henri Nestlé** : Daniel Peter = a chocolatier(동격). by + 동명사 둘 병렬(ditching · using). invented by ~ = powdered milk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riginate	기원하다	arise	—
domesticate	(작물을) 재배화하다	cultivate	—
enthusiastically	열성적으로	eagerly	reluctantly
pod	꼬투리	husk	—
lace	(양념 · 술을) 살짝 넣다	spike	—
currency	화폐	money	—
conquest	정복	subjugation	—
derive from	~에서 나오다	stem from	—
wimp	겁쟁이	coward	—
triumvirate	세 거두, 삼두	trio	—
mildew	곰팡이	mould	—
ditch	버리다	abandon	keep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ap	도약	advance	setback
byword	대명사, 상징	symbol	—

내용 일치 초콜릿 = 카카오나무(Theobroma cacao)의 씨앗 · 메소아메리카 원산 · 오늘날 3대 생산국 = 코트디부아르 · 가나 · 인도네시아(그 지역 밖) · 처음 재배는 오늘날의 에콰도르 · 페루로 여겨짐(논란 있음) / 올멕 · 마야 · 아즈텍이 받아들임 · 아즈텍: 카카오 '콩'(실은 꼬투리의 씨앗)에 옥수수 퓌레 · 고추 · 올스파이스 · 바닐라를 넣은 차가운 음료 · 고지대에서 자라지 않아 특히 귀함 · 마야 · 아즈텍이 화폐로 썼다고 함(전언) / 스페인 사람들: 16세기 아즈텍 제국 정복 뒤 멕시코에서 가져감 → 이름은 xocolātl에서 / 처음엔 음료 · 멕시코의 스페인 사람들이 고추를 빼고 설탕 · 꿀 · 17세기부터 유럽에 빠르게 퍼짐 / 1847년 고체 · Fry's of Bristol(영국 퀘이커교도 제과 회사 삼두마차: Cadbury's of Birmingham · Rowntree's of York)이 첫 대량 생산 바 · 다크 초콜릿 — 인기 때문이 아니라 우유를 넣으면 여분의 수분으로 곰팡이 / 1875년 두 스위스인: 쇼콜라티에 Daniel Peter가 생우유 대신 분유(Henri Nestlé 발명)로 첫 밀크 초콜릿 바 · 둘은 뒤에 다른 이들과 Nestlé 설립 / 1879년 Lindt & Sprüngli의 콘칭(기계로 오래 섞기 → 질감 · 풍미 개선) → 스위스 =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밑줄 의미** not beans but the seeds = 카카오 '콩'은 이름과 달리 씨앗이다 / (wimps!) = 고추를 뺀 스페인 사람들을 놀리는 저자의 농담 / the then triumvirate = 당시 영국 제과 업계를 이끈 세 회사 / This is not because ... It was because ... = 겉보기 이유와 진짜 이유의 대비 / the wizard of milk-based processed food technology = Henri Nestlé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표현 / the next leap = 밀크 초콜릿 다음의 큰 기술 진보 / a byword for high-quality chocolate = 스위스라고 하면 고급 초콜릿이 떠오른다 / 지칭: 128쪽 ¶2 It(originates · was adopted) = 초콜릿(카카오) · its(main producers) = 초콜릿의 · them(valued by them) = the Aztecs / 128쪽 ¶3 their(conquest) = the Spaniards의 · which(is why) = 앞 절 전체 / 128쪽 ¶4 it(was first brought) = chocolate / 128쪽 ¶6 This = 첫 바가 다크 초콜릿이었던 일 · which(allowed mildew) = the resulting excess liquid / 128쪽 ¶7 The two = Daniel Peter와 Henri Nestlé · which(improved) = 'conching'.

> **한 줄 요약** 아즈텍의 차가운 음료였던 초콜릿은 1847년 고체가 되었고, 1875년 분유를 쓴 밀크 초콜릿과 1879년 콘칭 공정이 스위스를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17-4 초콜릿만 만드는 나라? — 스위스와 탈산업 담론 129쪽 첫 줄 ~ ¶4

원문 위치 원서 129쪽 첫 줄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첫 줄 첫 문장	Many people think that chocolate is the only thing that Switzerland makes – except for those ludicrously expensive watches that only oligarchs, bankers and sports stars can afford	통념의 제시 · 어휘(ludicrously)
★	129쪽 첫 줄 둘째 문장	The widespread view is that it is a country that manufactures few things and lives on services	보어 that절 · live on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1 첫 문장	A negative spin on this would be that Switzerland is a country that makes a living by taking care of the black money deposited by Third World dictators in its secretive banks	부정적 해석 · by + 동명사
★	129쪽 ¶1 첫 문장 괄호	tacky souvenirs, like cuckoo clocks and cow bells (which these days are probably all made in China anyway)	저자의 추측(probably) — 단정 금지
★	129쪽 ¶1 둘째 문장	A positive – and more prevalent – spin is that the country is a model for the post-industrial economy, in which prosperity is based on services, like finance and high-end tourism, rather than manufacturing	전치사 + which · A rather than B
◆	129쪽 ¶2 첫 문장	The discourse of the post-industrial age, originating from the 1970s, starts from the simple but powerful idea that people increasingly want finer things as they become richer	동격 that · 어휘 문항의 바탕
★	129쪽 ¶2 둘째~넷째 문장	Once people fill their bellies, agriculture declines … clothing and furniture … electronics and cars … eating out, theatre, tourism, financial services	단계의 순서 — 어휘(basic · sophisticated)
▲	129쪽 ¶2 다섯째 문장	At that point, industry begins to decline, and services become the dominant economic sector, starting the post-industrial age	결과의 분사구문 starting · 어휘(decline)
★	129쪽 ¶3 첫 문장	gained traction in the 1990s, when almost all rich economies started see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fall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s rise … 'deindustrialization'	지각동사 see + O + 원형 · 용어 · 어법 (A)
★	129쪽 ¶3 둘째 문장	manufacturing had become what low-technology, low-wage countries like China did, while high-end services, like finance, IT services and business consulting, were the future	관계대명사 what · 어법 (B)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4 첫 문장	Switzerland, sometimes together with Singapore, has been touted as the proof that countries can maintain a very high standard of living by specializing in services	현재완료 수동 · 동격 that
★	129쪽 ¶4 둘째 문장	Persuaded by the argument and inspired by the examples of Switzerland and Singapore, som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and Rwanda, even have been trying to more or less skip industrialization altogether	수동 분사구문 · 어법 (C) · 나라 – 일치

내용

많은 사람이 스위스가 만드는 것은 초콜릿뿐이라고 생각한다. 올리가르히나 은행가, 스포츠 스타만 살 수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를 빼면 말이다. 널리 퍼진 생각은 스위스가 제조하는 것이 거의 없고 서비스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제3세계 독재자들이 비밀스러운 은행에 맡긴 검은돈을 관리하고, 버꾸기시계나 소 방울 같은 조잡한 기념품(요즘은 아마 어차피 다 중국에서 만들 것이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 일본 관광객에게 팔아서 먹고사는 나라다. 긍정적으로 보면 – 그리고 이쪽이 더 널리 퍼진 해석이다 – 스위스는 번영이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과 고급 관광 같은 서비스에 바탕을 두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다. 1970년대에 생겨난 탈산업 시대 담론은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나면 농업이 쇠퇴한다. 옷과 가구처럼 더 기본적인 다른 필요를 채우고 나면 전자 제품과 자동차 같은 더 정교한 소비재로 옮겨 간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소비 수요는 외식, 연극, 관광, 금융 서비스 같은 서비스로 옮겨 간다. 그 시점에서 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서비스가 지배적인 경제 부문이 되면서, 인류 경제 발전의 탈산업 시대가 열린다. 이런 탈산업 시대관은 1990년대에 힘을 얻었다. 그때 거의 모든 부자 나라에서 산출과 고용 양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의 비중이 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을 '탈산업화'라고 부른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떠오르자, 탈산업 사회론자들은 제조업은 이제 중국 같은 저기술 · 저임금 나라가 하는 일이 되었고, 금융 · IT 서비스 · 경영 컨설팅 같은 고급 서비스가 특히 부자 나라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 담론에서 스위스는 때로 싱가포르와 함께, 서비스에 특화해서도 매우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로 내세워졌다. 이 주장에 설득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사례에 고무되어, 인도와 르완다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사실상 아예 건너뛰고 고급 서비스의 특화 수출국이 되어 경제를 발전시키려 해 오기까지 했다.

어법

- **Many people think that chocolate is the only thing that Switzerland makes – except for those ludicrously expensive watches that only oligarchs, bankers and sports stars can afford** : the only가 붙은 선행사(the only thing)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흔히 쓴다. except for ~ = ~을 빼면. 둘째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watches).
- **The widespread view is that it is a country that manufactures few things and lives on services** : 보어 자리의 that절(명사절 접속사). few + 복수 명사 = 거의 없는. live on = ~으로 먹고살다.
- **a country that makes a living by taking care of the black money deposited by Third World dictators in its secretive banks and selling tacky souvenirs** : make a living = 생계를 꾸리다. by + 동명사 둘 병렬(taking care of · selling). deposited by ~ = black money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 **the country is a model for the post-industrial economy, in which prosperity is based on services, like finance and high-end tourism, rather than manufacturing** : 전치사 + 관계대명사(in which, 선행사 the post-industrial economy).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be based on = ~에 바탕을 두다.

- **starts from the simple but powerful idea that people increasingly want finer things as they become richer** : the idea that ~ = 동격의 that(idea의 내용). as = ~함에 따라(비례). finer = fine의 비교급(더 좋은).
- **almost all rich economies started see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fall and the importance of services rise** : 지각동사 see + O + 동사원형(fall · rise). to fall · to rise는 오답. start + -ing = ~하기 시작하다.
- **the proponents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argued that manufacturing had become what low-technology, low-wage countries like China did** : 관계대명사 what = the thing which(did의 목적어가 빠진 자리). that으로 바꾸면 선행사가 없어 오답. 주절이 과거(argued)라 had become(과거완료).
- **Persuaded by the argument and inspired by the examples of Switzerland and Singapore, some developing countries … even have been trying to more or less skip industrialization altogether** : Persuaded · inspired = 수동의 분사구문(주어 some developing countries가 설득당함 — Persuading은 오답). have been trying = 현재완료 진행. to more or less skip =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낀 분리 부정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udicrously	터무니없이	absurdly	reasonably
oligarch	올리가르히(권력을 쥔 소수 재벌)	tycoon	—
spin	(특정한) 해석, 시각	slant	—
secretive	비밀스러운	confidential	open
tacky	조잡한, 싸구려의	tasteless	tasteful
unsuspecting	아무것도 모르는	unwary	suspicious
prevalent	널리 퍼진	widespread	rare
post-industrial	탈산업의	—	industrial
discourse	담론	—	—
sophisticated	정교한	advanced	simple
dominant	지배적인	leading	minor
traction	지지, 견인력	support	—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tout	내세우다, 선전하다	promote	—

내용 일치 통념: 스위스가 만드는 것은 초콜릿뿐(올리가르히 · 은행가 · 스포츠 스타만 살 수 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시계 빼고) · 제조하는 것이 거의 없고 서비스로 먹고삶 / 부정적 해석: 제3세계 독재자의 검은돈 관리(비밀스러운 은행) · 조잡한 기념품(버꾸기시계 · 소 방울 — 아마 다 중국산, 추측)을 미국 · 일본 관광객에게 판매 / 긍정적(더 널리 퍼진) 해석: 번영이 금융 · 고급 관광 같은 서비스에 바탕을 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 / 탈산업 담론: 1970년대 · 부유해질수록 더 좋은 것을 원함 → 배를 채우면 농업 쇠퇴 → 옷 · 가구 → 전자 제품 · 자동차 → 외식 · 연극 · 관광 · 금융 서비스 → 공업 쇠퇴 · 서비스 지배 / 1990년대에 힘을 얻음 · 산출과 고용 양면에서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 '탈산업화' · 중국이 세계 최대 공업국 · 제조업은 저기술 · 저임금 나라의 일, 고급 서비스(금융 · IT · 경영 컨설팅)가 부자 나라의 미래라는 주장 / 스위스(때로 싱가포르와 함께) = 서비스 특화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증거 · 인도 · 르완다가 산업화를 건너뛰려 함. **밑줄 의미** those ludicrously expensive watches = 시계마저 일부 부자만 사는 사치품일 뿐이라는 통념 / A negative spin · A positive spin = 같은 통념을 나쁘게 · 좋게 포장한 두 해석 / (which these days are probably all made in China anyway) = 기념품마저 스위스산이 아닐 것이라는 저자의 비꼼(추측) / the simple but powerful idea = 탈산업 담론이 설득력을 얻은 까닭 / gained traction = 1990년대의 실제 변화가 담론에 힘을 실어 줌 / has been touted as the proof = 스위스가 담론의 대표 사례로

선전됨 / more or less skip industrialization altogether = 제조업 단계를 아예 건너뛰려 함 / 지칭: 129쪽 첫 줄 it(it is a country) = Switzerland / 129쪽 ¶1 this(spin on this) = 스위스는 서비스로 먹고산다는 생각 · its(secretive banks) = Switzerland의 · which(are probably made in China) = cuckoo clocks and cow bells · in which = the post-industrial economy / 129쪽 ¶2 they(become richer · meet · move on) = people / 129쪽 ¶3 this process =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 129쪽 ¶4 this discourse = 탈산업 담론 · the argument = 고급 서비스가 미래라는 주장 · their(economies) = 일부 개발도상국의.

> **한 줄 요약** 스위스는 금융과 관광 같은 서비스로 번영하는 탈산업 경제의 본보기로 여겨졌고, 이 담론에 설득된 일부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건너뛰려 하기까지 했다.

17-5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 – 탈산업화의 진짜 원인 129쪽 ¶5 ~ 130쪽 ¶4

원문 위치 원서 129쪽 ¶5 ~ 130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9쪽 ¶5 첫 문장	Unfortunately for the advocates of post-industrial society, Switzerland is actually the most industrialized economy in the world,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장의 반전 · 분사구문 · QUIZ(True)
★	129쪽 ¶5 둘째 문장	partly because the country is small (only around 9 million people) but also because it specializes in what economists call 'producer goods' – machines, precision equipment and industrial chemicals	partly because ~ but also because ~ · 숫자 · 용어
★	129쪽 ¶5 셋째 문장(130쪽 첫 줄까지)	Singapore, another supposed post-industrial success story, is the world's second most industrialized economy	supposed · 서수 + 최상급
◆	130쪽 첫 줄(129쪽 ¶5 넷째 문장)	Using Switzerland and Singapore as models of post-industrial service economy is like – how shall I put it?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밑줄 의미 1순위 · 동명사 주어 → is
★	130쪽 ¶1	What is driving deindustrialization is mainly changes in productivity, not changes in demand	what절 주어 → is · A, not B · 빈칸 문항의 바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0쪽 ¶2 둘째 문장	Because th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come increasingly mechanized, we don't need the same number of workers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see 'Strawberry')	빈칸 1순위 · 「Strawberry」와 연결
▲	130쪽 ¶2 셋째 문장	workers today can produce many multiples of what their parents' generation could	대동사 could (produce)
★	130쪽 ¶2 넷째 문장	A half century ago, manufacturing took up around 40% of the workforce in the rich countries, but today the same – and sometimes even greater – amount of output is produced with 10–20% of the workforce	숫자 — 일치 함정(40% ↔ 10~20%)
▲	130쪽 ¶3 셋째 문장	not because the demand for services has increased more than has the demand for manufactured goods in absolute terms, as the proponents of the post-industrial discourse would have us believe	비교절의 도치 · have + O + 원형
★	130쪽 ¶3 넷째 문장	mainly because services are becoming relatively more expensive, given the faster productivity growth in manufacturing than in services	요지 1순위 · given + 명사구
★	130쪽 ¶3 다섯째 문장	how computers and mobile phones have become so much cheaper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compared to haircuts or eating out	상대 가격의 예
★	130쪽 ¶3 여섯째 문장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 national output has declined only marginally in most rich countries (the UK is an exception) and even increased in some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Sweden and Finland)	나라 — 일치(영국은 예외)
◆	130쪽 ¶4	Contrary to the myth of post-industrialism, the ability to produce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remain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a country's living standards (also see 'Anchovy')	주장 1순위 · 통합 사고 빈칸 · 「Anchovy」와 연결

내용

탈산업 사회 옹호론자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스위스는 사실 1인당 제조업 산출이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다. 우리가 'Made in Switzerland' 제품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작기(인구 약 900만 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위스가 경제학자들이 '생산재'라고 부르는 것 – 기계, 정밀 장비, 산업용 화학 물질 – 곧 우리 같은 보통 소비자는 보지 못하는 것에 특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또 하나의 이른바 탈산업 성공 사례인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된 경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탈산업 서비스 경제의 본보기로 쓰는 것은 – 뭐라고 해야 할까 –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내세워 해변 휴가를 홍보하는 것과 같다. 탈산업주의 옹호론자들은 최근 경제 변화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탈산업화를 이끄는 것은 주로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다. 이 점은 고용과 관련해 보면 더 쉽게 보인다. 제조 공정이 점점 더 기계화되어, 같은 양의 제조업 산출을 내는 데 예전만큼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Strawberry」 참고). 기계와 산업용 로봇의 도움으로 오늘날 노동자는 부모 세대가 생산할 수 있던 양의 몇 배를 생산할 수 있다. 반세기 전 부자 나라에서 제조업은 노동력의 약 40%를 차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노동력의 10~20%로 같은 양, 때로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 산출의 움직임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이 나라들에서 국민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탈산업 담론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절대량으로 보아 서비스 수요가 제조품 수요보다 더 많이 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이발이나 외식에 비해 얼마나 싸졌는지 생각해 보라. 이런 상대 가격 변화의 효과를 고려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 산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몫은 대부분의 부자 나라에서 아주 조금 줄었을 뿐이고(영국은 예외),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탈산업주의의 신화와 달리, 제조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능력은 여전히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Anchovy」도 참고).

어법

- **Switzerland is actually the most industrialized economy in the world, producing the largest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 producing ~ = 앞 내용을 풀어 주는 분사구문(그리고 ~을 생산한다). per person = 1인당.
- **We don't see many 'Made in Switzerland' products partly because the country is small ... but also because it specializes in what economists call 'producer goods'** : partly because A but also because B = 한편으로는 A 때문이지만 B 때문이기도 하다. what economists call ~ = 경제학자들이 ~라고 부르는 것(call + O + C의 O 자리를 what이 채움).
- **Singapore, another supposed post-industrial success story, is the world's second most industrialized economy** : another supposed ~ = 이른바 또 하나의 ~(supposed = 그렇다고들 하는). 서수 + 최상급: the world's second most industrialized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화된.
- **Using Switzerland and Singapore as models of post-industrial service economy is like – how shall I put it?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 동명사 주어(Using ...) → 단수 is. be like + 동명사 = ~하는 것과 같다. how shall I put it? = 삽입된 직접의문문(뭐라고 할까?).
- **What is driving deindustrialization is mainly changes in productivity, not changes in demand** : what절 주어는 단수 취급 → is. 보어 changes가 복수여도 동사는 주어에 맞춘다. A, not B = B가 아니라 A.
- **we don't need the same number of workers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manufacturing output** : the same number of + 복수 명사(셀 수 있음) / the same amount of + 셀 수 없는 명사. to produce = 목적의 to부정사.
- **this has happened not because the demand for services has increased more than has the demand for manufactured goods in absolute terms, as the proponents ... would have us believe** : not because A = A 때문이 아니다(뒤 문장 It has happened mainly because B가 진짜 까닭). than 뒤 has the demand ... = 비교절의 주어 · 조동사 도치(than the demand ... has). have + O + 원형(believe) = O가 ~하게 하다.

- **the ability to produce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remain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a country's living standards** : 주어 the ability(단수) → remains. to produce = abilit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remain + 보어 = 여전히 ~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dvocate	옹호자	proponent	critic
industrialized	산업화된	—	—
precision	정밀(함)	accuracy	imprecision
producer goods	생산재	capital goods	consumer goods
supposed	이른바, ~라고 여겨지는	alleged	—
promote	홍보하다	advertise	—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basically	—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
mechanize	기계화하다	automate	—
multiple	배수	—	—
absolute	절대적인	—	relative
marginally	아주 조금	slightly	substantially
competitively	경쟁력 있게	—	—
determinant	결정 요인	factor	—

내용 일치 스위스 =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 · 1인당 제조업 산출 1위 / 'Made in Switzerland'가 잘 안 보이는 까닭 = 작은 나라(약 900만 명) + 생산재(기계 · 정밀 장비 · 산업용 화학 물질)에 특화 · 보통 소비자는 보지 못함 / 싱가포르 = 세계 2위 / 노르웨이 · 핀란드로 해변 휴가를 홍보하는 격 / 탈산업화의 원인 = 주로 생산성의 변화(수요의 변화가 아님) / 고용: 기계화 → 같은 산출에 더 적은 노동자(「Strawberry」) · 기계 · 산업용 로봇 → 부모 세대의 몇 배 · 반세기 전 노동력의 약 40% → 오늘날 10~20%로 같은(때로는 더 많은) 산출 / 산출: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는 사실 · 그러나 절대량의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님 · 제조업 생산성이 더 빨리 올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컴퓨터 · 휴대전화 vs 이발 · 외식) · 상대 가격을 고려하면 대부분 부자 나라에서 아주 조금 감소(영국은 예외)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는 증가 / 제조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능력 = 생활 수준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Anchovy」). **밑줄 의미** Unfortunately for the advocates = 옹호론자의 대표 사례가 오히려 반례 / producer goods … that ordinary consumers … do not see = 스위스 제조업이 눈에 띄지 않는 까닭 / another supposed post-industrial success story = 탈산업 성공 사례라는 평가는 '그렇다고들 하는' 것일 뿐 /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 주장과 정반대인 예를 본보기로 드는 어리석음 / fundamentally misunderstand = 원인을 수요에서 찾는 근본적 오해 / as the proponents … would have us believe = 탈산업 담론 지지자들의 설명이지 저자의 설명이 아님 / the myth of post-industrialism = 탈산업주의는 근거 없는 믿음 / 지칭: 129쪽 ¶5 it(specializes) = Switzerland · that(ordinary consumers do not see) = 'producer goods' / 130쪽 ¶2 This point = 탈산업화는 생산성 변화 탓이라는 점 · their(parents' generation) = workers today의 / 130쪽 ¶3 that(of services) = the importance · this(has happened) = 제조업 비중 감소 · 서비스 비중 증가 · these countries = 부자 나라들.

> **한 줄 요약**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이며, 탈산업화는 수요가 아니라 생산성의 변화에서 온 것이어서 제조업 능력이 여전히 생활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17-6 제조업을 버린 대가 — 서비스 · 혁신 · 금융, 그리고 스위스의 비밀 130쪽 ¶5 ~ 131쪽 ¶5

원문 위치 원서 130쪽 ¶5 ~ 131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0쪽 ¶5 첫 문장	Many of the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be replacing manufacturing … cannot exist without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다 · 제목 문항의 바탕
★	130쪽 ¶5 둘째 문장	These services look 'new' only because they used to be provided in-house by manufacturing companies … but are now supplied by firms specializing in those services	used to be p.p. · 통계 분류의 변화
◆	131쪽 각주 i	Some even argue that these services should be classified as manufacturing activities, rather than services, for this reason. I thank Jostein Hauge	각주 — 인물
▲	130쪽 ¶5 셋째 문장	This is why countries with strong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witzerland and Singapore, also have strong service industries (although the re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This is why · 부분 부정
★	130쪽 ¶6(131쪽 첫 줄까지)	manufacturing is still the main sour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only around 10% of economic output, 60–70% of R&D … 80–90% in … Germany or South Korea	숫자 — 일치 · 요약문 (A)
★	131쪽 ¶1 첫~둘째 문장	particularly harmful for the US and the UK. Since the 1980s, these countries, especially the UK, have neglected their manufacturing sector under the illusion that their decline is a positive sign	동격 that · 요약문 (B)
◆	131쪽 ¶1 셋째 문장	This gave policy-makers a convenient excuse for not doing anything about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4형식 · for + 동명사의 부정 · 삽입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1쪽 ¶2 첫 문장	driven by over-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ector, which came crashing down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숫자 · come + -ing
▲	131쪽 ¶2 둘째 문장	the feeble recovery they have generated (... 'secular stagnation' ...) is based on another financial (and real estate) bubble ... 'quantitative easing'	주어 recovery → is · 용어
◆	132쪽 각주 ii	In the UK, interest rates have never been lower since records began in 1694,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England	숫자 — 일치
★	131쪽 ¶3	stock markets in those countries have gone up to historical heights while the real economy tanked ...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y more	밑줄 의미 1순위 · while 대조
◆	131쪽 ¶4 첫~둘째 문장	don't let that fool you. The secret of Swiss success is the world's strongest manufacturing sector, and not things like banking and upmarket tourism	주장 1순위 · let + O + 원형
★	131쪽 ¶4 셋째~넷째 문장	even the Swiss reputation in the field of chocolate originates from the ingenuity of its manufacturing sector ... It is not due to its competence in the service industries	초콜릿 이야기 되받기
◆	131쪽 ¶5	The discourse of post-industrial society, for which Switzerland has been an unwitting role model, is at best misleading and at worst harmful for the real economy. We believe in it at our peril.	전치사 + which · at best ~ at worst · 결론

내용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생산성 서비스 — 금융, 운송, 사업 서비스(경영 컨설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의 상당수는 제조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조업이 그들의 주된 고객이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들이 '새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전에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제공해 제조업 산출로 계산되었지만 지금은 그 서비스에 특화한 회사가 공급해 서비스업 산출로 계산되기 때문일 뿐이다(131쪽 각주 i: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서비스가 아니라 제조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저자는 이 점을 짚어 준 Jostein Hauge에게 감사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서비스업도 강한 것은 이 때문이다(그 반대가 반드시 참은 아니다). 게다가 제조업은 여전히 기술 혁신의 주된 원천이다. 제조업이 경제 산출의 약 10%에 불과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연구 개발(R&D)의 60~70%를

제조업이 수행한다. 독일이나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인 경제에서는 그 수치가 80~90%다. 우리가 이제 탈산업 경제 시대에 산다는 믿음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 해로웠다. 1980년대부터 두 나라, 특히 영국은 제조업의 쇠퇴가 국민 경제가 산업 경제에서 탈산업 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착각에 빠져 제조업을 방치했다. 이 착각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조업의 쇠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편리한 핑계를 주었다. 그 대신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미국 경제는 금융 부문의 과잉 발전에 이끌렸고, 그 금융 부문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무너져 내렸다. 그 뒤 두 나라가 만들어 낸 미약한 회복(경제학자들은 '장기 침체'를 이야기해 왔다)은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와 중앙은행이 이끈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생긴 또 하나의 금융(과 부동산) 거품에 기대고 있다(132쪽 각주 ii: 영국의 금리는 잉글랜드 은행이 세워진 1694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보다 낮았던 적이 없다). 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 시장이 이제 실물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팬데믹 동안 두 나라의 주식 시장은 역사적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실물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보통 사람들은 실업과 소득 감소에 시달렸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는 이제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 본 'Made in Switzerland' 물건이 초콜릿뿐이더라도(스위스에 살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때문에 속지 말라. 스위스 성공의 비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업이나 고급 관광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조업이다. 실제로 초콜릿 분야에서 스위스가 얻은 명성조차 제조업의 독창성(분유의 발명, 밀크 초콜릿의 창조, 콘칭 기술의 개발)에서 나왔다. 서비스 산업의 역량 — 이를테면 은행이 초콜릿 바 구매자를 위해 정교한 할부 상환 계획을 내놓는 능력이나 광고 회사가 세련된 초콜릿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는 능력 — 덕분이 아니다. 스위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본보기 노릇을 해 온 탈산업 사회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를 부르고 나쁘게 보면 실물 경제에 해롭다. 그것을 믿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어법

- **Many of the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be replacing manufacturing … cannot exist without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 : 주어 Many of the … services가 길다 — 동사는 cannot exist. be supposed to V = ~한다고 여겨지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it =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ir = 그 서비스들의.
- **These services look 'new' only because they used to be provided in-house by manufacturing companies … but are now supplied by firms specializing in those services** : only because ~ = 단지 ~이기 때문에. used to be p.p. = 예전에는 ~되곤 했다(지금은 아님). specializing ~ = firms를 꾸미는 현재분사구.
- **This is why countries with strong manufacturing industries … also have strong service industries (although the re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 This is why ~ = 그래서 ~이다(앞이 원인). not necessarily =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부분 부정).
- **Even in the US and the UK, where manufacturing accounts for only around 10% of economic output, 60–70% of R&D … is conducted by the manufacturing sector** : 콤마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the US and the UK). account for = (비율을) 차지하다. 퍼센트 + of + 단수 명사(R&D) → 단수 is.
- **these countries … have neglected their manufacturing sector under the illusion that their decline is a positive sign that their national economies are making a transition** : the illusion that ~ · a positive sign that ~ = 둘 다 동격의 that. under the illusion = 착각에 빠져.
- **This gave policy-makers a convenient excuse for not doing anything about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 give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4형식). for + 동명사의 부정(not doing) — not은 동명사 앞에.
- **the financial sector, which came crashing down i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콤마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financial sector). come + -ing = ~하며 오다(came crashing down = 와르르 무너졌다).
- **The discourse of post-industrial society, for which Switzerland has been an unwitting role model, is at best misleading and at worst harmful** : 전치사 + 관계대명사(for which = a role model for the discourse). 주어 The discourse(단수) → is. at best ~ and at worst ~ = 좋게 보아도 ~, 나쁘게 보면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house	사내의, 회사 안에서	internal	outsourced
reverse	반대	opposite	—
innovation	혁신	invention	—
neglect	방치하다	ignore	attend to
illusion	착각	delusion	reality
excuse	핑계	pretext	—
feeble	미약한	weak	robust
stagnation	침체	slump	growth
bubble	거품	—	—
tank (v.)	곤두박질치다	plummet	soar
parlance	말투, 어법	idiom	—
ingenuity	독창성	inventiveness	—
unwitting	자기도 모르는	unknowing	deliberate
peril	위험	danger	safety

내용 일치 제조업을 대체한다는 고생산성 서비스(금융 · 운송 · 사업 서비스 — 경영 컨설팅 · 엔지니어링 · 디자인)의 주된 고객 = 제조업 · '새것'처럼 보이는 까닭 = 예전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제공(제조업 산출) → 지금은 전문 회사가 공급(서비스 산출) · 131쪽 각주 i: 제조 활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Jostein Hauge) / 제조업이 강한 나라(스위스 · 싱가포르)는 서비스업도 강함(반대는 꼭 그렇지 않음) / 제조업 = 기술 혁신의 주된 원천 · 미국 · 영국: 제조업 산출 약 10% · R&D 60~70% · 독일 · 한국: 80~90% / 탈산업 믿음은 특히 미국 · 영국에 해로움 · 1980년대부터(특히 영국) 쇠퇴를 긍정적 신호로 착각해 방치 · 정책 결정자의 편리한 핑계 / 금융 과잉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 미약한 회복('장기 침체') = 역사적 저금리 · 양적 완화가 만든 또 하나의 금융(· 부동산) 거품 · 132쪽 각주 ii: 영국 금리는 1694년(잉글랜드 은행 설립) 기록 시작 이래 최저 / 코로나19(2020~22): 주식 시장 역사적 최고치 · 실물 경제 곤두박질 · 실업 · 소득 감소 / 스위스 성공의 비밀 = 세계 최강의 제조업(은행 · 고급 관광이 아님) · 초콜릿 명성도 제조업의 독창성(분유 · 밀크 초콜릿 · 콘칭) · 서비스 역량(할부 상환 계획 · 마케팅) 덕이 아님 / 탈산업 담론 = 좋게 보아도 오해, 나쁘게 보면 해로움. **밑줄 의미** it is their main customer = 서비스는 제조업에 기대어 산다 / look 'new' only because = 새 산업이 생긴 것이 아니라 통계 분류가 바뀐 것 / the re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 서비스가 강하다고 제조업이 강한 것은 아님 / a convenient excuse = 쇠퇴를 막지 않아도 되는 구실 / came crashing down = 금융 과잉의 결말 /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 보통 사람의 삶이 따로 논다 / don't let that fool you = 초콜릿만 보고 스위스를 오해하지 말라 / an unwitting role model = 스위스는 자기도 모르게 담론의 본보기가 됨 / at our peril = 그 담론을 믿으면 위험하다 / 지칭: 130쪽 ¶5 it(is their main customer) = the manufacturing sector · their = 그 서비스들의 · This(is why) = 서비스가 제조업에 기댄다는 점 / 131쪽 첫 줄 The figure = 제조업이 수행하는 R&D 비중 / 131쪽 ¶1 these countries = 미국과 영국 · their decline = 제조업의 쇠퇴 · This(gave) = 그 착각 / 131쪽 ¶2 which(came crashing down) = the financial sector · they(have generated) = 영국과 미국 경제 / 131쪽 ¶4 that(let that fool you) = 산 스위스 제품이 초콜릿뿐이라는 사실 · its = Switzerland의 / 131쪽 ¶5 it(believe in it) = 탈산업 사회 담론.

> **한 줄 요약** 서비스와 혁신은 제조업에 기대고 있고 제조업을 방치한 미국과 영국은 금융 거품에 기대게 되었으니, 스위스 성공의 비밀은 서비스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조업이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7 CHOCOLATE]

범위	Chocolate (원서 PDF 126~132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ven if chocolate is the only Swiss-made product you have ever bought – which is very likely unless you live there – do not be misled by it. Switzerland owes its success not to banking or luxury tourism, as is commonly assumed, but to the strongest manufacturing sector on earth. In fact, even its fame for chocolate grew out of industrial ingenuity: powdered milk, the first milk chocolate and the technology of conching. It did not come from clever service firms, such as banks designing instalment plans for chocolate buyers or advertising agencies running slick campaigns. Without knowing it, Switzerland has become the favourite example of the post-industrial discourse, which misleads us at best and damages the real economy at worst. Believing in it is dangerous.

① Countries should build their wealth on finance and luxury tourism.
② Switzerland should advertise its chocolate more cleverly.
③ A strong manufacturing sector, not services, is the real key to prosperity.
④ Developing countries can safely skip industrialization.
⑤ Swiss banks deserve most of the credit for the country's succes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espite what believers in post-industrialism claim, a country's living standards still depend above all on how competitively it can make manufactured goods. Many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aid to be taking over from manufacturing – finance, transport, and business services like consulting, engineering and design – could not survive without it, because manufacturing firms are their chief customers. These services only seem 'new' because manufacturers once provided them in-house, so they were counted as manufacturing output; now specialist firms supply them, so they are counted as services. Some even argue that they should therefore be classed as manufacturing. This explains why Switzerland and Singapore, both strong in manufacturing, are strong in services as well – though the opposite does not always hold.

① Why Services Still Depend on Manufacturing
② How Services Finally Replaced Factories
③ The End of Manufacturing in Rich Countries
④ Switzerland's Secret: Banking and Tourism
⑤ Consulting Firms: A Truly New Industry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it comes to output, it is true that manufacturing has become less important in rich countries, while servic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But the reason is not, as post-industrial thinkers would have us believe, that people's demand for services has outgrown their demand for goods in absolute terms. It is mainly that services have grown relatively more expensive, since productivity has risen faster in manufacturing than in services. Think how much cheaper computers and phones have grown than haircuts or restaurant meals over the past two decades. Once such relative price changes are taken into account, manufacturing's share of national output has fallen only slightly in the majority of rich countries, Britain being an exception, and in a few, like Switzerland, Sweden and Finland, it has even grown.

① Services have grown because people now demand them far more than goods.
② Manufacturing's falling share mostly reflects services becoming relatively costlier.
③ Computers and phones now cost more than haircuts.
④ Rich countries should stop producing manufactured goods.
⑤ Productivity has grown faster in services than in manufacturing.

4. 밑줄 친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Many people believe that Switzerland makes little besides chocolate and lives on services. Sadly for those who champion post-industrial society, Switzerland is in fact the world's most industrialized economy, turning out more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than any other country. We rarely notice Swiss-made goods, partly because Switzerland is a small country of only about 9 million people, and partly because it concentrates on so-called 'producer goods' – machinery, precision instruments and industrial chemicals – which ordinary shoppers never see. Interestingly, Singapore, supposedly another post-industrial success, ranks as the second most industrialized economy on earth. Treating these two countries as examples of a service-based, post-industrial economy is like using Norway and Finland to promote beach holidays.

① proving that small countries depend mainly on services
② choosing examples that actually disprove the point being made
③ promoting tourism in countries with cold weather
④ selecting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a strategy
⑤ showing that manufacturing is declining everywhere

5. 밑줄 친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y mo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stead of tackling the decline of their manufacturing, the UK and the US let an overgrown financial sector drive their economies over recent decades, until it collapsed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weak recovery that followed – economists speak of 'secular stagnation' – has rested on yet another bubble in finance and property, inflated by very low interest rates and the 'quantitative easing' of central banks. The pandemic of 2020–22 exposed how detached the financial markets of these two countries have become from the real economy. While share prices climbed to record highs, the real economy crashed and ordinary people lost jobs and income. To put it in American terms, Wall Street and Main Street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y more.

① banks have moved their offices out of city centres
② ordinary people now invest heavily in shares
③ the real economy grows faster than the stock market
④ central banks no longer control interest rates
⑤ financial markets move regardless of how the real economy and ordinary people are doing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In 1875 two Swiss men finally overcame the mildew problem. One of them, Daniel Peter, was a chocolatier. ① He produced the first milk chocolate bars when ② he abandoned fresh milk and used powdered milk instead. The powder that made ③ his bars possible had been invented by Henri Nestlé, and the author praises ④ him as a genius of processed foods made from milk. Later, Peter and Nestlé teamed up with others to create the food giant Nestlé. Four years after ⑤ his breakthrough with milk chocolate, another Swiss firm, Lindt & Sprüngli, took chocolate making a step further: in 1879 it invented 'conching', a process of mixing the ingredients by machine for a long time, which improved chocolate's texture and flavou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Chocolate is made of cacao seeds, which grow on the tree known as Theobroma cacao. Although the tree is native to Meso-America, Ghana, Côte d'Ivoire and Indonesia are now the three biggest producers. Though the point is debated, the tree is thought to have been first cultivated in what are now Ecuador and Peru. The Aztecs loved the 'beans' – really the seeds of the cacao pod – and mixed chocolate with corn purée, chilli, allspice and vanilla to make a cold drink. As the tree could not grow in their highland home, the beans were especially precious to them. After conquering the Aztec empire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Spaniards took chocolate back to Spain, and its names today come from xocolātl, an Aztec word.

① 오늘날 카카오의 3대 생산국은 모두 메소아메리카에 있다.
② 카카오나무는 오늘날의 멕시코에서 처음 재배된 것이 확실하다.
③ 아즈텍인이 살던 고지대에서는 카카오나무가 자라지 못했다.
④ 아즈텍인은 초콜릿에 옥수수 퓌레를 섞어 따뜻한 음료로 마셨다.
⑤ 스페인 사람들은 17세기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뒤 초콜릿을 가져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Chocolates like M&Ms and Hershey's bars ranked among the most popular smuggled goods. Korea did not produce any chocolate of its own until 1967, and its chocolate was not much good until 1975, when Lotte launched the Gana bar, made only with cacao beans brought in from Ghana; it remains the longest-running chocolate brand in the country. Ever since his M&M days, the author has spent almost sixty years fighting – and usually losing to – his craving for anything made from cacao beans. He also loves the luxury bars of top chocolatiers such as Hotel Chocolat, Pierre Marcolini and Valrhona. He admits that he is no expert who cares much about which single estate a bar's beans come from, but he cannot resist the intense, complex flavours these makers create.

① 한국에서는 1967년까지 초콜릿을 생산하지 않았다.
② 가나 초콜릿은 가나에서 들여온 카카오 콩으로만 만들었다.
③ 가나 초콜릿은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초콜릿 상표다.
④ 저자는 60년 가까이 카카오 콩으로 만든 것에 대한 욕구와 씨름해 왔다.
⑤ 저자는 카카오 콩의 단일 농장 원산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감식가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Enjoying such refined chocolates does not make the author a snob; he eats chocolate in every form. He often picks ordinary, reliable bars like Cadbury's Dairy Milk over 70%-cacao bars. Many fellow chocolate lovers in Europe look down on Hershey's bar for ① having too little chocolate in it. According to the BBC, its chocolate content is just 11%, under half ② that of Dairy Milk, whose share of 23% is ③ so low that the bar does not even dare to use the name 'chocolate'. Still, the author remains fond of Hershey's, ④ acquired a taste for it as a child. If anything must be added to chocolate, he votes for peanuts, and he is also partial ⑤ to chocolate paired with orang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post-industrial view gained ground during the 1990s, as nearly every rich economy saw manufacturing's importance fall and that of services (A) [rise / to rise] in terms of both output and jobs. As China grew into the world's largest industrial nation, supporters of post-industrial society claimed that manufacturing had become (B) [what / that] poorer countries with low technology and low wages did, while high-end services such as finance, IT and business consulting represented the future for rich nations. Switzerland was held up as proof that a very high living standard could be maintained through specializing in services. (C) [Persuading / Persuaded] by this argument, a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India and Rwanda among them, have even tried to skip industrialization more or less altogether.

	(A)	(B)	(C)
①	to rise	what	Persuading
②	rise	what	Persuaded
③	rise	that	Persuaded
④	to rise	that	Persuaded
⑤	rise	what	Persuad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e idea of a post-industrial age emerged in the 1970s. It starts from a simple but ① powerful observation: as people grow richer, they want ever finer things. Once their stomachs are full, agriculture ② declines. When they have satisfied other fairly ③ basic needs, such as clothing and furniture, they turn to more complex products like cars and electronic goods. When most people own these, consumers start spending on services, from restaurant meals and the theatre to travel and financial services. At this stage industry starts to ④ expand, and services become the ⑤ dominant sector, opening the post-industrial era.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upporters of post-industrialism badly misread the nature of recent economic change. Deindustrialization is driven mainly by shifts in productivity rather than shifts in demand, and this is easiest to see in employment. As manufacturing has become more and more mechanized, _____. Aided by machines and even industrial robots, today's workers can turn out many times what their parents' generation could. Fifty years ago, manufacturing employed about 40% of the workforce in rich countries; today, the same amount of output – sometimes even more – is produced with only 10–20% of the workforce.

① the same output now needs fewer workers than before
② people have come to want fewer manufactured goods
③ factories have had to hire more workers than before
④ manufacturing output has fallen sharply
⑤ consumer demand has moved from goods to servic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is was not, however, because people preferred dark chocolate to milk chocolate.

When chocolate first arrived in Europe, it was a drink, prepared in the Aztec way. (①) By then, though, the Spaniards in Mexico had removed the chilli and sweetened it with sugar or honey, and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he drink spread rapidly across Europe. (②) Chocolate became solid only in 1847, when Fry's of Bristol, a British Quaker confectioner, came up with the first chocolate bar to be mass-produced. (③) Although people had been adding milk to chocolate drinks for a couple of centuries, that first bar was made of dark chocolate. (④) The real reason was that every earlier effort to put milk into chocolate bars had failed, since the extra liquid let mildew grow. (⑤) Solving this would take two Swiss men.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dd flour, along with fat and sugar, to chocolate and a whole new universe opens up. ① There are brownies, fudge cake, Guinness cake, molten 'lava' cake and Black Forest cake, along with countless biscuits and cookies. ② Chocolate is also enjoyed in ways unrelated to sweets: as a child, the author loved drinking cocoa, though these days he mostly drinks tea and coffee. ③ Switzerland produces more manufacturing output per person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④ He is not a great fan of ice cream, but he will happily eat any that contains chocolate. ⑤ A friend taught him to stir a few squares of dark chocolate into chilli con carne, and in Mexico he often orders chicken served with mole poblano, a chocolate-and-chilli sauc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confesses that he is an addict. His habit began in the mid-1960s, when he was just a toddler.

(A) Bringing in large items such as cars and TVs was very hard, but resourceful Koreans smuggled out smaller consumer goods in large quantities from the US military base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These goods went to travelling peddlers, who sold them on to better-off families.

(B) The illegal substance that first hooked him had been sneaked out of US military bases and sold on the black market in the South Korea of his childhood. Its name was M&Ms.

(C) A black market in M&Ms? He is not inventing this. Back then, Korea banned the import of foreign goods – from cars and TVs to biscuits, chocolates and even bananas – except for the machinery and raw materials that its industrialization directly required.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anufacturing is also still where most new technology comes from. In America and Britain, where it accounts for a mere 10% or so of output, it carries out 60–70%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economies more focused on manufacturing,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the share is 80–90%. Yet the belief that we have entered a post-industrial age has done particular damage to the US and the UK. From the 1980s, these two countries, and the UK above all, let their manufacturing sector wither, imagining that its decline was a healthy sign that their economies were moving from an industrial to a post-industrial stage. This illusion handed policy-makers a convenient reason to do nothing about it.

→ Even though manufacturing still carries out most of the (A) _____ even where its share of output is small, the US and the UK took its decline as a sign of (B) _____ and so let it wither.

① research ..... crisis
② research ..... progress
③ marketing ..... progress
④ marketing ..... failure
⑤ tourism ..... progres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s a toddler in the mid-1960s, the author became hooked on M&Ms that had been smuggled from US military bases and sold on Korea's black market. Korea produced no chocolate until 1967, and Korean chocolate was not much good until 1975, when the Gana bar appeared, made only with cacao beans from Ghana. He still loves Hershey's bar, though a BBC report says it is just 11% chocolate, compared with 23% for Cadbury's Dairy Milk. Chocolate first became solid in 1847, and in 1875 Daniel Peter made the first milk chocolate bar by replacing fresh milk with powdered milk. Contrary to popular belief, Switzerland is the world's most industrialized economy.

<QUIZ>

(1) From where were the M&Ms the author ate as a toddler smuggled?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the Gana bar appear?

Answer for (2): _____

(3) From which country did the cacao beans for the Gana bar come?

Answer for (3): _____

(4) According to a BBC report, what percentage of Hershey's bar is chocolate?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chocolate first become solid?

Answer for (5): _____

(6) What did Daniel Peter use instead of fresh milk?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Switzerland is the world's most industrialized economy?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967	N. 1847
B. military bases	O. Ghana
C. 23%	P. Singapore
D. Ecuador	Q. peddlers
E. True	R. 1975
F. False	S. 9 million
G. 1875	T. Lotte
H. fresh milk	U. 40%
I. powdered milk	V. conching
J. 1879	W. 11%
K. honey	X. 1694
L. 70%	Y. black market
M. Bristol	Z. Nestlé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나에게는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형용사적 to부정사)

02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 이외의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동명사 주어 / other than)

03 나는 카카오 콩의 원산지에 큰 가치를 둘 만큼 감식가는 아니다. (enough of a + 명사 + to V)

04 나는 어린 시절에 그 맛을 들였기에 여전히 Hershey를 각별히 좋아한다.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

05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카카오 콩을 화폐로 썼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6 스페인 사람들이 초콜릿을 본국으로 가져갔고, 그래서 그 이름은 아즈텍 말에서 나왔다. (계속적 which / which is why)

07 이것은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더 인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not because + 비교급)

08 거의 모든 부자 나라가 제조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지각동사 see + O + 원형)

09 탈산업화를 이끄는 것은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주로 생산성의 변화다. (what절 주어 / A, not B)

10 이 서비스들은 예전에는 제조 기업이 사내에서 제공하곤 했다. (used to be p.p.)

11 이것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편리한 핑계를 주었다. (4형식 / for + not -ing)

12 탈산업 사회 담론은 좋게 보아도 오해를 부르고 나쁘게 보면 해롭다. (at best ~ at worst ~)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처음 빠진 '불법 물질' / 시작 시기	
M&M이 빼돌려진 곳 / 팔린 곳	
당시 수입이 허용된 것	
한국 초콜릿 생산이 없던 때 / 가나 초콜릿이 나온 해	
가나 초콜릿의 카카오 콩 / 만든 회사	
Hershey / Dairy Milk의 초콜릿 함량(BBC)	
카카오의 3대 생산국	
카카오나무가 처음 재배된 곳(여겨짐)	
아즈텍의 초콜릿 음료	
스페인 사람들이 초콜릿을 가져간 때 / 이름의 기원	
고체 초콜릿의 해 / 첫 대량 생산 바의 회사	
첫 바가 다크 초콜릿이었던 까닭	
첫 밀크 초콜릿 바(1875)	
콘칭을 발명한 회사 · 해	
스위스 인구 / 특화 분야	

항목	답
세계에서 가장 / 두 번째로 산업화된 경제	
부자 나라 제조업 고용 비중(반세기 전 → 오늘날)	
탈산업화의 주된 원인	
미국 · 영국 / 독일 · 한국의 제조업 R&D 비중	
영미의 금융 위기 / 영국 금리 기록의 시작	

4-3. 통합 사고 문제 — 4장과 17장을 잇는 자리

문제

4장에서 저자는 기술 능력이 높으면 자연이 지운 제약을 넘을 수 있다고 했고(43쪽 ¶4), 지속 가능한 높은 생활 수준은 산업화, 곧 혁신과 기술 능력의 주된 원천인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며 「Chocolate」 장을 참고하라고 했으며(44쪽 ¶2), 그런 생산 능력은 천연자원처럼 '바닥나지' 않는다고 썼다(44쪽 ¶3). 17장에서 저자는 스위스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이고(129쪽 ¶5), 제조업이 여전히 기술 혁신의 주된 원천이라고 썼으며(130쪽 ¶6), 일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건너뛰려 해 왔다고 소개했다(129쪽 ¶4). 이를 바탕으로, 아래 130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d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4장과 17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4장 또는 17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생활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Contrary to the myth of post-industrialism, the ability to produce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remains the most important _____ of a country's living standard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